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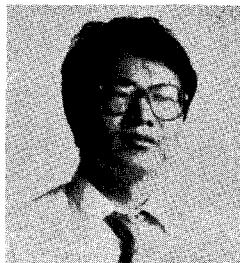
낙농육우회보라는 잡지는 한 두번쯤 읽어볼만한 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의식속에서 항시 존재하는 꼭 읽어야할 유익한 잡지가 되기를 ……

있는 사람들은 경험으로, 지식 있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기술있는 사람들은 기술로 낙농육우회보를 통하여 하나로 모여 나갈수있는 회원독자의 광장으로 모두가 참여 하여 함께 만드는 동참의식으로

낙농육우회보라는 잡지는 한 두번 쯤 읽어 볼만한 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의식속에서 항시 존재하는 꼭 읽어야할 유익한 잡지가 되기를 바라며 밝은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의 우리 낙농육우회원

여러분들과 오늘도 낙농육우협회의 여러 어려운 살림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앞날에 밝고 소망찬 결실의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 약간은 흥분으로 맞이하고 싶다.



정 부 진

천호제일사료 홍보·판촉담당 과장

선인(先人)들은 세월을 쪼개는 방법의 하나로 연(年)을 만들어 놓았고 사람들은 이 세월의 매듭을 곧잘 이용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이 매듭을 기화로 변신의 기회나 도약의 발판으로 삼거나 새로운으로 다시 깨어나기도 한다.

1989년, 분명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한 것이다. 새해에 솟는 해는 지난해 보아온 그해 임이 분명하건만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느껴진다. 따라서 각오 또한 새로워진다. 그동안 한국 낙농육우인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낙농육우회보에게도 느끼는 감정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특히 지난해 누적되 온

난제들을 풀어오면서 겪은 고초가 컸던 본지에 있어서 느끼는 강도는 그만큼 클 것으로 짐작된다.

의학적으로 증명되는지는 알 길 없지만 어린애들은 크기 위해서 가끔 아픔을 갖는다고 한다. 본지도 지난 한해를 그러한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금년을 도약하는 해, 미래를 향한 변신의 해로 삼았으면 좋겠다. 특히 기술과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깨알같은 활자 하나하나가 모두 버릴 수 없는 값진 내용이어서 우리나라 축산인에

게 피와 살이 되었으면 바란다. 덧붙여 최근의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대외적인 고함보다는 냉철한 자기반성과 분발을 위한 몸부림을 보고 싶다. 더 욕심을 낸다면 생산자 단체의 목소리를 가다듬고 한발 앞서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성숙을 바란다.

독자는 매월 기다린다. 화사한 화장을 하고 나타나는 모습을 약간은 흥분으로 맞이한다. 저고리의 색깔, 동정의 유연한 선, 베선 코의 날렵함, 속눈썹에 가리워진

눈동자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모두가 홍미이며 새로움이기 때문이다. 독자는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러한 화사함 이면에 진실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단체의 움직임, 그 구성원의 숨소리, 맥박이 살아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낙농육우회보를 전국의 낙농육우인은 매월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이책을 받아 보는 날, 새로움으로 다시 깨어나 자기의 일상을 힘차게 시작할 것이다. ■

### 토막소식

### 어린 송아지 돌보기

어린 송아지를 정상적으로 사육하여야만 후에 번식이나 비육 또는 우유 생산등에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 송아지를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아지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송아지에 있어 근육이나 소화기관들의 발육이나 증체를 위해서 단백질이 풍부한 사료를 먹여야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힘을 내게 할뿐만 아니라 증체를 위해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는 푸류사료도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끌격형성이나 발육 어필 요한 칼슘, 인 등 무기물 사료와 각종 비타민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말린 풀과 기별 배합사료를 사양 표준대로 먹여야 합니다. 또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말린 풀과 기별 배합사료를 사양 표준대로 먹여야 합니다. 또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소를 기르다 보면 애써서 얻은 송아지가 걸려 고생을 하게되거나 폐사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이 경험합니다.

어린송아지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잣 태어난 송아지에 있어서는 초유(初乳)를 빠른 시간내에 먹여야 합니다. 초유에는 면역물질이 들어있고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무기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